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31장 다같이

1.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맘으로 섬기겠네
2.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맘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3.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맘으로 섬기리다
 온 맘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후렴)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시편 23편 3절 인도자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설 교 "영광의 영성"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꿈의 정원과 청년부에게 은혜로운 여름되게 하옵소서.
3. 교회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영성

시편 23편 3절

헬라어 ‘에피스트레포(*epistrepho*)’는 ‘되돌아오다’, ‘데리러 오다’는 뜻이다.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길을 잃은 양은 덩불이나 바위 밑에 숨어 ‘메에’ 소리를 내는데, 목자는 맹수보다 양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 때 양은 극도로 불안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어깨에 메고 오기도 하며 가슴에 앉기도 한다. 필리프 드 샤파뉴(프랑스 1602-1674)가 그린 <착한 목자>라는 그림은 목자의 심정을 잘 그려냈다. ▶찬송가 277장 “양 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라는 찬양은 목자를 부르는 양의 고백의 형식을 띄고 있다. 양은 목자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소망을 주는 사람, 우리를 끝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양은 잘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 등이 땅에 닿아 네 발이 허공으로 들린 양은 자기 힘으로 일어 설 수 없다. 뒤집힌 양은 위에 가스가 차게 되는데, 혈액 공급이 끊기기도 하므로 뒤집힌 양은 빨리 바로 일으켜 세우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문가이다. 시121:1과 121:3이 그런 주님을 노래한다. 영적인 필요는 마음과 영혼 모두에 필요하다.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생명력(생명, 마음, 기력)이 모두 살아난다. ▶건강한 양떼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평탄한 길, 형통의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시다(요 3:16).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형통일 때가 많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도 쓰신다. 질병, 고난, 시련, 실패가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건강, 가정, 학업, 결혼, 직장, 일, 사업, 신앙생활 등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한대로가 아니라 당신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 눅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길이며 성결의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바른 길이다. 광야에서는 가이드가 길임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길이시다(요14:6).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나의 가치나 선행에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즉, 자신에게 속한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 일하신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십계명의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답(1648년)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의 답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와 연결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기도하라. 시115: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